

식품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봉성중(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한국
유통
가
업
대
회
www.kmia.or.kr

식품안전성 확보라는 대 전제하에 현행 유통기한 제도의 탄력적 운용과 함께 유통업소에 대한 관련 책임의 분담, 정부의 감시방법, 대소비자 교육, 홍보, 반품 식품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유통기한 관련 식품반품 실태조사 및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식품 잔품량 감소를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식품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정착시키며, 식품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결과이다.

기·획·특·집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한 응답은 위생관계 공무원이 82.2%, 제조, 유통판매영업자 82.9%로 비슷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일반시민은 62.8%로 약 20%가 낮게 나타나 일반시민이 유통기한의 의미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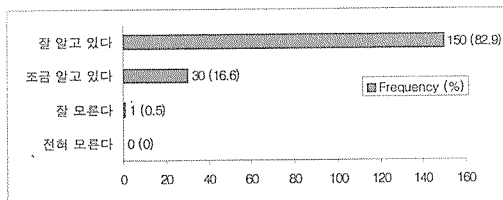


그림 2-3 제조, 유통판매영업자의 유통기한 인지도

• 식품 구매시 유통기한 표시 확인 여부에서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라고 긍정적인 응답은 위생관계 공무원은 96.2%, 일반시민은 93.2%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 유통판매영업자는 재고관리 시 유통기한 확인여부를 묻는 질문에 79.6%는 '반드시 확인한다' 라고 하였으나, '대체로 확인한다' 라고 응답한 비율도 20.4%나 되어 항상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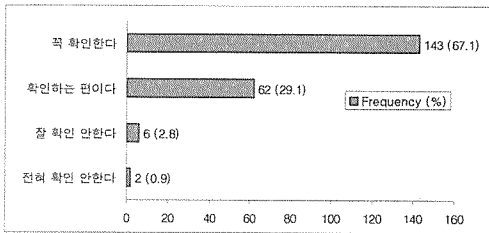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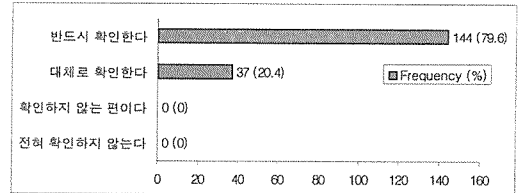
그림 2-5 위생관계공무원의 구매 시 유통기한 확인여부

식품 판매업소에서 진열된 식품이 어떤 형태로 선택이 되고 있는지 대한 조사 결과

'최근일자'의 식품을 선택한다'가 81.3%로 가장 높았으며, '진열된 순서로 선택한다'는 13.2%에 불과했다. 군별로는 '최근일자'의 식품을 선택한다' 라고 한 일반시민이 85.5%에 비하여 위생관계공무원이 77.5%로 더 낮게 나타난 것은 위생관계공무원이 일반시민에 비하여 유통기한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조, 유통판매영업자의 72.9%가 '소비자가 최근일자'의 식품을 선택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었으나, 조사결과 제조, 유통판매영업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일반시민은 12.6%, 위생관계공무원은 4.6%가 각각 더 높게 최근일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제조, 유통판매영업자는 선입선출 등 재고관리에 대한 적극



적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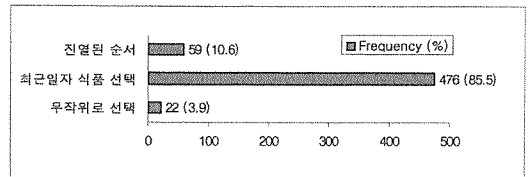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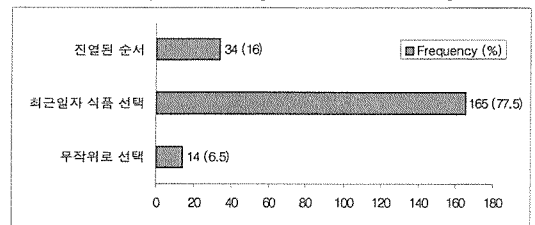


그림 2-6 제조, 유통판매영업자의 선입선출 등 재고관



리시 유통기한 확인여부

그림 2-7 일반시민의 판매업소에서 식품 선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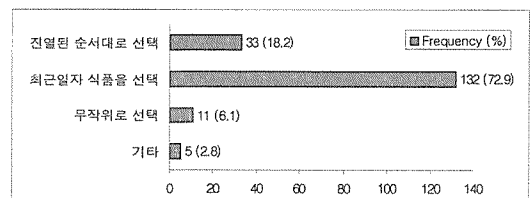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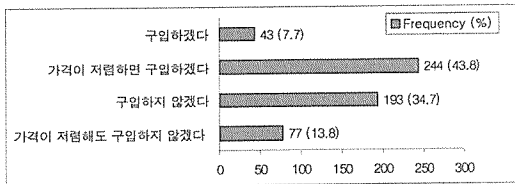


그림 2-8 위생관계 공무원의 판매업소에서 식품 선택 방법

그림 2-9 제조, 유통판매영업자의 판매업소에서 소비자의 식품선택 방법

일반시민, 위생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구입 의사여부 조사

'구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은 유통기한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막연한 불안감의 해소를 위해서 제조업소 및 유통판매업소는 물론이고, 관련 단체와 정부는 이에 대한 흥



보 등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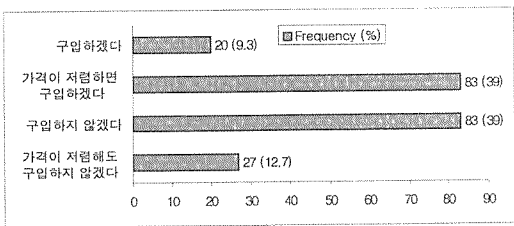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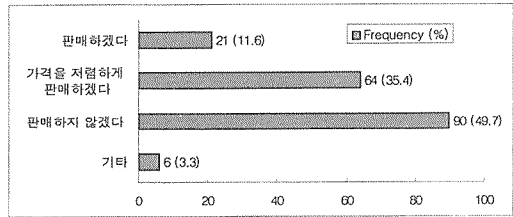
그림 2-10 일반시민의 유통기한 임박식품 구입의사 여부

그림 2-11 위생관계공무원의 유통기한 임박식품 구입의사 여부

제조, 유통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판매의사 여부를 묻는 질문

'판매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47.0%인 반면, 49.7%가 '판매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유통기한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을 심히

우려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이러한 불안 심리로 인하여 반품량 발생이 증가됨은 물론이고,



이들 제품의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림 2-12 제조, 유통판매 영업자의 유통기한 임박식품 판매의사 여부

생산된 식품 중 반품되고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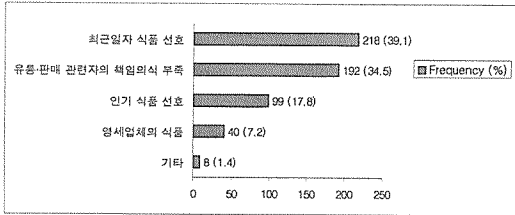
34.0%는 '생산량의 5-10%'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으나, 반품물량이 '생산량의 3-5%'는 15.7%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본 조사 결과로 볼 때 반품물량에 대해 정확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 및 관련 단체 등이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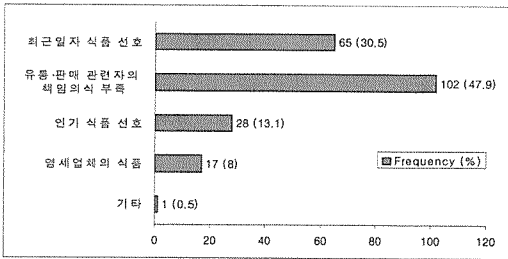
식품의 선입선출이 판매점에서 잘 안 되는 원인

39.7%가 '유통판매 관련자의 책임의식 부족'이라고 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최근일자 식품 선호'가 37.7%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일반시민의 39.1%가 '최근일자 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가장 높은 반면에, 위생관계공무원의 47.9%와 제조, 유통판매영업자의 46.4%가 '유통판매 관련자의 책임의식 부족'이라고 한 응답

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효율적인 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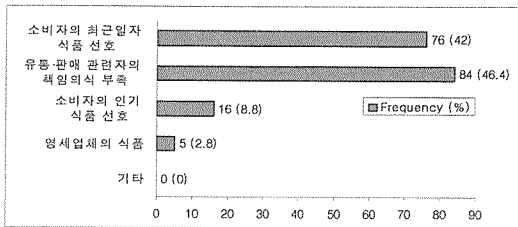


선출을 위해서는 유통판매관련업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림 2-13 일반시민의 선입선출이 판매점에서 안되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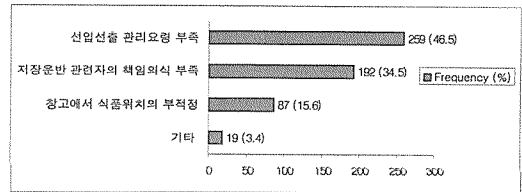
그림 2-14 위생관계공무원의 선입선출이 판매점에서 안되는 원인

그림 2-15 제조, 유통판매영업자의 선입선출이 판매점에서 잘 안되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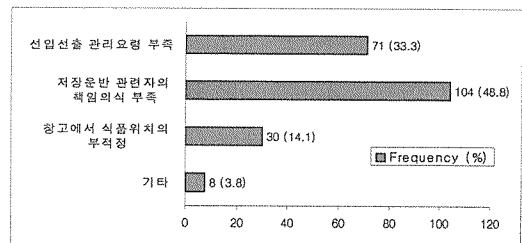
제조, 유통판매 중 식품의 선입선출이 잘 안되

는 원인

42.6%가 '선입선출의관리요령 부족' 이라고 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저장운반 관련자의 책임의식 부족' 이 39.3%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일반시민은 '선입선출 관리요령 부족' 이 46.5%로 가장 높았으나, 위생관계 공무원의 48.8%와 제조, 유통판매영업자의 43.1%는 '저장운반 관련자의 책임의식 부족'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제조, 유통판매 중 선입선출이 잘 안되는 원인



은 '선입선출 관리요령의 부족' 과 '저장운반 관련자의 책임의식 부족' 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



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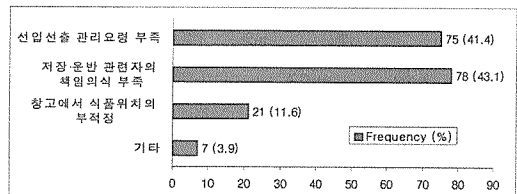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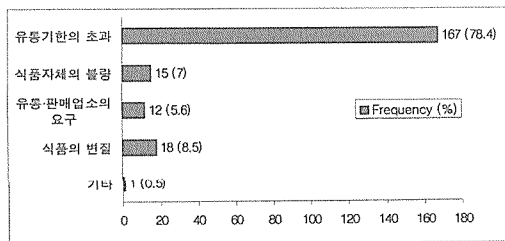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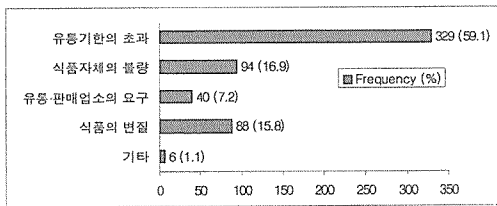
그림 2-16 일반시민의 식품 선입선출이 제조유통판매 중 안되는 원인

그림 2-17 위생관계 공무원의 식품 선입선출이 제조 유통판매 중 안되는 원인

그림 2-18 제조, 유통판매영업자의 선입선출이 제조 유통판매 중 잘 안되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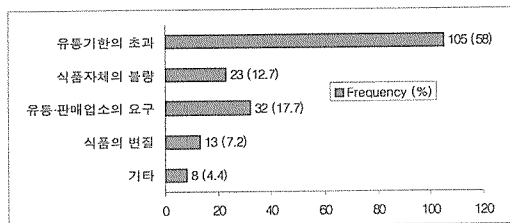
“식품이 반품되는 가장 큰 사례”에 대한 설문

63.2%가 ‘유통기한의 초과’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으며, ‘유통, 판매업소의 요구’가 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군별로는 ‘유통기한의 초과’라고 한 응답이 위생



관계 공무원이 78.4%, 일반시민이 59.1%, 제

조, 유통판매영업자가 58.0%로서 식품반품 및 폐기와 관련하여 유통기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2-19 일반시민의 식품반품 되는 가장 큰 사례
그림2-20 위생관계공무원의 식품반품 되는 가장 큰 사례

그림2-21 제조, 유통판매영업자의 식품반품 되는 가장 큰 사례

식품 중 반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유통판매 관련자의 책임의식 부족’이 46.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소비자의 식품 선택방법’이 26.7%, ‘제조업자 관리 소홀’이 17.5%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국민 및 제조업자와 특히 유통판매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반품식품 발생원인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식품 폐기량 발생의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

‘유통기한의 초과’가 35.8%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물량의 과다생산’이 26.5%, ‘유통기한 경과식품의 활용 부족’이 20.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유통판매업소에서 식품 폐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유통기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제조업소에서는 적정물량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시장 수급상황 조사를 통해서 소비 물량 파악을 정확히 하여 과다생산 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식품의 반품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

‘유통판매업소 재고관리 개선’이 39.4%로 가장 높았으며, ‘남은 유통기한에 따라 가격 차등화’는 21.2%, ‘식품의 저장, 보관방법 개선’이 18.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품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유통판매 영업소에서의 유통기한 관리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효율화 및 체계화가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반품된 식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사료화’가 46.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Food Bank 기증’ 23.7%, ‘퇴비화’가 15.4% 그리고 ‘안전성 입증하에 식품 원료로 재활용’이 1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품식품에 대한 위생상의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안전성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입증된 식품에 한해서만 Food Bank 기증 등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1년도 연간 품목별로 반품된 식품의 물량과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

제조업소 및 유통판매업소가 응답한 결과는 식품별 총판매액 대비 반품금액율은 ‘인삼, 건강보조식품’이 0.0%로 가장 낮았고, ‘두부 및 묵류’가 3.5%~20.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제품별 유통기한에 따른 차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유통기한 등 위생관리가 가장 안되는 매장은

‘슈퍼마켓 등 소형판매장’이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백화점이나 대형판매장’은 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슈퍼마켓 등 소형판매장’에 대한 철저한 유통기한의 표시 관리 등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하겠다.

전국 시, 도 및 시, 군, 구의 위생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2000년과 2001년도의 “유통기한 표시”와 관련해 위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 관련 행정처분 총 2,239건수 중에서 ‘유통기한 경과건수’가 7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료로 재사용하여 적발된 건수는 2.9%로 조사되었다. 이는 제조, 유통판매업자의 재고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여, 이외에 식품원료로 재사용한 사례도 있었으나, 재사용한 반품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그리고 기준 및 규격의 적부는 알 수 없었다.

제조업소 및 유통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 표시 관련 감시에 지적된 사례

유통기한에 대한 단순 표기의 잘못으로 위반된 사례가 18건이었고,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4건, 이중 2건이 원료로 재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유통기한 자율화 이후, 유통기한을 변경한 사례

74.6%가 기존 식품의 ‘유통기한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으며, ‘유통기한을 연장하였다’는 18.2%, ‘단축 및 연장하였다’는 4.4% ‘단축하였다’는 2.8%로 각각 나타났다. 유통기한이 자율화한 이후로 74.6%가 기한을 변